오늘의 게시판

영호남 여성CEO 경영혁신 연수 오후 1시 담양리조트

행사

〈14일〉

▲영호남 여성CEO 경영혁신 연수=오후 1시 담양리조트. 광주·전남·북, 대구, 울산, 경북지역 여성 CEO 등 180여명 참석 예정. 정광열 (주)KPEC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웃음요가연구소장이 각각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전략', '경영 혁신을 위한 웃음 요가' 라는 주제로 강연.

▲조선대 지역사회발전연구원 초청 특강=오후 2시 조선대 경상대 대강의실. 박광태 광주시장이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경제살리기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124회 강진 다산 강좌=오후 2시 강진군 문화회관. 남태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정보에 익사하고 지식에 아사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강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워크숍=오전 10시30분 센트럴 관광호텔. 김정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이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박형진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이 '지역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등 산·학·연·관 관련자 13명이 발표.

▲제 75회 순천사랑 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이 '내 고향은 순천'이라는 주제로 강연.

▲한국복지재단 광주지부 지부개설 40주년 기념 2006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경복궁 웨딩컨벤션 4층 대연회장. 후원자 180명·결연 아동 220명 등 430명 참석 예정.

▲외국인 여성 및 가족위안잔치=오전 10시 장흥군 실내체육관. 200여명이 참여해 한국 전통놀이·장기자랑 등 행사.

〈15일〉

▲충장공 김덕령장군 제 410주년 제향행사=오전 11시 충장사.

▲제 3회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배정 및 출품설명회=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누리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오후 5시 5·18기념문화센터.

▲제 503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진 한국을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강연.

▲완도군의장배 테니스대회=오전 11시30분 완도군립테니스장.

공연

▲연극 '동소산 머슴새'=14일 오후 7시3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무용 콩쿠르'=14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안희봉 교수 해금 연주회=14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가족 뮤지컬 '미운오리 새끼'=15일(금) 오전 10시30분 ,11시 30분, 낮 12시 50분 광주 서구문화센터.

▲광주 시립교향악단 제228회 정기연주회=15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

전시

▲천연 염색 규방 공예전=20일까지 상계갤러리.

▲아트페어=2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강현덕전'=1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우리지역업체 우수제품 전시회전=21일까지 광주 북구청갤러리.

▲창작지원전 '김진화전'=17일까지 롯데화랑.

뉴스퀴즈

29. 아시아의 대표적인 미술축제가 지난 8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야외공연장과 주전시관 일원에서 개막돼 6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열풍변주곡(Fever Variations)'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32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 모두 89개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재해석하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①광주비엔날레 ②부산국제영화제
③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④대한민국 섬유교역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㊱ 나이 든 사람에게 배우는 연애

사랑에도 유행이 있다지만…

너무 빨리 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애의 기술은 세월이 흘러 유행어를 사용하면서 재미를 유발하는 것 등 최신의 연애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즘 연애하는 모습이 다들 비슷하게 보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좀 색다른 연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때로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연애도 문화이며,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듯 구세대의 연애 방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억척스러운 기다림을 말하고 싶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종이학 1천마리 접어가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성에 반해 닫혀 있던 마음을 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 1천마리를 접어서 선물한다면 크게 좋은 반응을 얻기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집착이 너무 강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꼭 종이 학 1천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에게 정성을 보여주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다른 방법은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예전엔 배고픈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귀한 선물이 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줄 도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겠지만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고백할 때 장미꽃과 직접 만든 초콜릿이나 쿠키를 선물 한다면 상대방이 쉽게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해서 공원에서 함께 먹는 방법도 너무 환상적인 연애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손수건이라는 쉬운 소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손수건을 빌려주고 빌려 받으며 만남을 연장시키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빌려주고 빌려 받으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연장시켜 보도록 하자. 그러한 만남의 과정에서 '뭔가(Something)'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즘엔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데이트 할 때는 손수건을 하나쯤은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커피를 마실 때 흘릴 때 기회라고 생각해서 닦아 주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옷에 묻어서 속상할 지라도 작은 손수건 하나로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첫 만남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만남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할까? 마음에 들면 또 만나자고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손수건을 메신저로 사용해 보자. 아마 신선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도 유행을 타지만 가끔 Classic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남 다른 멋과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윤 7월 22일 丙午)

子 36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48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보라. 72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84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라 . 행운의 숫자 : 06, 29

丑 37년생 불연이면 시비에 휘말린다. 49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3년생 제사가 불리하다. 85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33

寅 38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0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흉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74년생 좋은 일과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1, 40

卯 39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춘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3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75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12, 36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꿈을 시도하라. 64년생 흉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3

巳 41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가라. 65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77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09, 34

午 42년생 공짜 술에 병이 나니 곁에도 가지마라. 5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7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만은 않다. 행운의 숫자 : 07, 30

未 43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55년생 무촌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라. 67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79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고 나가라. 행운의 숫자 : 2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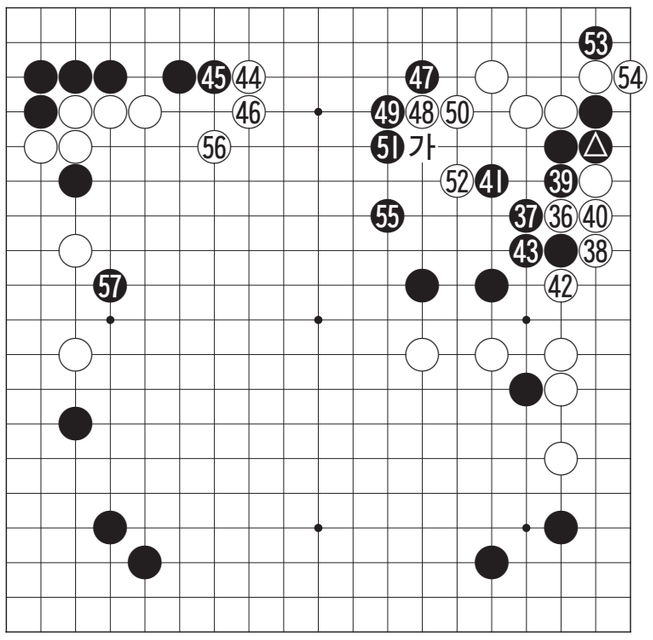
申 44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6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68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 행운의 숫자 : 14, 36

酉 45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7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1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7, 40

戌 46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8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82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3, 25

亥 47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9년생 일실일득이나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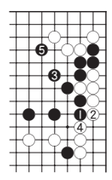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주고받은 실착 4회전 제3보(36~57)

白 이상의 5단 〈광주시청A〉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참고도〉

흑 △는 매우 커서 잇고 싶은 곳이다. 이곳을 이어둬야만 귀쪽이나 우변의 뒷맛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백도 36으로 붙이고 38로 넘어가는 정도다.

이때 유병수 5단에게서 최초의 실착이 등장했다. 흑 41이 그것으로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1로 늘어 백 2와 교환하고 나서 3으로 지켜야 했다. 그러면 백은 4로 지켜야 되는데 그때 5로 짚어가면 흑의 자세가 좋아 호조가 계속된다. 거꾸로 42를 맞아서는 흑의 모양이 무너졌다. 흑 43으로 이은 수도 느린 수. 이 수로도 손을 빼서 50 자리에 짚어가야 했다.

흑 47도 역시 50에 두어야 했는데 백 50이 이것을 응징하지 못하고만 나약한 수였다. '가'에 두어 흑을 양분했으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흑 55로 연결해 한숨을 돌리고 57로 짚어가서는 주도권이 흑의 손으로 넘어갔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조훈현 9단, 日 하네 9단에 석패

한국의 1장인 조훈현 9단이 1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8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 제2국에서 일본의 하네나오키 9단에게 276수 끝에 흑 반집패했다.

조 9단은 이날 특유의 '속력 행마'를 내세우며 초반 국면을 압도했으나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잇따른 실착으로 힘겨운 승부를 자초했다.

조 9단은 하네 9단의 3차례 완착으로 국면을 역전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도,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좌상귀 부근에서 또다시 실착을 범해 패배를 불렀다.

하네나오키 9단은 중국의 2장인 평첸 6단과 14일 3국을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33>

Don't rush me

나를 몰아대지마

A:Hurry up Audy.
B:Just a second. **Don't rush me.**
A:I have to .... since it is likely to start raining.
B:OK. I'm coming right now.

A:앤디야, 서둘러.
B:잠깐만, **나를 몰아대지마.**
A:나도 서둘러야 되겠어....비가 올 것 같거든.
B:알았어, 지금 곧 갈게.

rush : 서두르게 하다 ; 몰아대다
Just a second. : just a moment.
start ~ing : (곧) ~하기 시작할 것 같다 .
Hurry up! : Make haste!
it is likely to start raining.
= it is going to start raining.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33>

このテレビ、いくらですか?

이 텔레비전 얼마입니까?

A:**このテレビ、いくらですか?**
B:お客(きゃく)さん、お買得(かいどく)ですよ。消費税(しょうひぜい)こみで、3萬7千円です。
A:そうね。もう少(すこ)しまけられないの?
B:これ以上(いじょう)は、ちょっと.....。あっ、代(か)わりに、このビデオテープ3本で1パックのもの、おまけしておきますよ。

A:이 텔레비전 얼마입니까?
B:손님, 싸게 잘 사는 겁니다. 소비세 포함해서 3만 7천엔입니다.
A:글쎄요, 조금 더 깎을 수 없을까요?
B:이 이상은 좀 앗 그 대신에 이 비디오 테이프 3개에 1팩인 것.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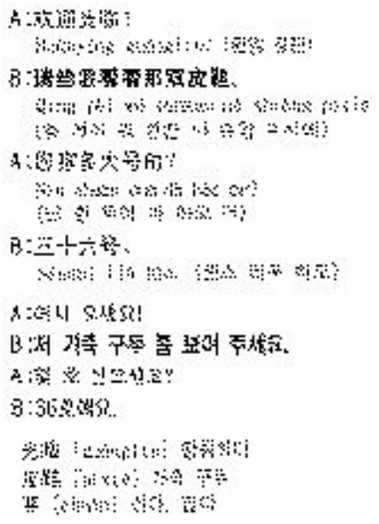
消費税(しょうひぜい)こみ : 소비세를포함해서
まける : 싸게하다, 값을 깎아주다
おまけ : 덤 , 경품
もう少し : 조금 더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51>

请给我看看那双皮鞋

저 가죽 구두 좀 보여 주세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51>

吳越同舟 (오월동주)

나라이름 오, 나라이름 월, 한가지 동, 배 주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오나라와 월나라처럼 원수끼리 한 자리에 있게 된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아무리 원수 사이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오월동주라는 말은 '손자(孫子)'에서 나온다. "월나라 사람과 오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그러나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돕기를 좌우의 손이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한다."〈구지편(九地篇)〉

손자는 자신의 병법(兵法)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길만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을 '사지(死地)'라고 설명한다. 전쟁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치듯, 용감한 사람이나 겁쟁이나 누구나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사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오월동주'라는 성어이다.

즉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일지라도 사지에 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힘을 합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손자가 생각한 본뜻과는 다르게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한 자리에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